

전북 일부 지역 중학생의 제 7 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 중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최선정¹⁾ · 손희숙 · 차연수 · 김숙배[†]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리교육 전공¹⁾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

Sun-Jeong Choi,¹⁾ Hee-Sook Sohn, Youn-Soo Cha, Sook-Bae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¹⁾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 by gender, school location and school type.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questionnaire about three category: perception (interests, practical usefulness, attitude change in food behavior), difficulty (nutrition and health in adolescence, balanced diet, principle of cooking and preparing food), necessity (nutrition and health in adolescence, balanced diet, principle of cooking and preparing food). The subjects were 1014 middle school students of 1st grade in Jeonbuk area: urban 334, suburban 339 and rural 341.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difference in 'interests' by gender (girls > boys), school location (urban, suburban > rural) and school type (coeducation > boys, girls). There were differences in 'practical usefulness' by school location (urban > rural) and in 'attitude change in food behavior' by school location (urban > suburban > rural) and school type (boys, girls > coeducation). 2) There was difference in difficulty in section of 'nutrition and health in adolescence' by school location (suburban > rural).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ection of 'balanced diet' by gender, school location and school type.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section of 'principle of cooking and preparing food' by school location (urban, rural > suburban) and school type (coeducation > boys). 3) There were differences in necessity for 'balanced diet' and for 'principle of cooking and preparing food' by school location (urban, suburban > rural) and school type (coeducation > boys, girls). Characteristically, the boys had more necessity for 'nutrition and health in adolescence' and for 'balanced diet' than girls but girls had more necessity for 'principle of cooking and preparing food' than boys. It suggests that gender, school type and school loca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an effective and practical curriculum of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9(1) : 12~18, 2004)

KEY WORDS : home economics · recognition · perception · difficulty · necessity

서 론

한 개인에 있어 올바른 식생활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노

채택일 : 2004년 2월 2일

*이 논문은 2001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ook-Bae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 Dukjin-dong, Dukjin-gu, Jeonju 561-756, Korea

Tel: (063) 270-3823, Fax: (063) 270-3854

E-mail: sbkim@chonbuk.ac.kr

화역제, 암 예방 등 건강한 삶의 기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 및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크게 겪는 제 2의 급성장기로 이 시기의 영양 섭취가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바, 청소년기의 건강과 성장발육은 물론이고 나아가 일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 등 2002).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에 나타난 청소년의 영양섭취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에너지, 단백질, 인,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평균 섭취량은 권장량 이상의 섭취를 보이거나, 칼슘과 철분의 섭취량은 매우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열량, 단백질 섭취 증가와는 다르게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의 섭취는 오히려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 있어서 체중과다 또는 비만의 지속적인 증가 뿐 아니라, 결식, 편식, 패스트푸드의 선호, 고열량 식품 섭취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무리한 절식으로 인한 섭식장애, 결식·외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보고되었다(Ha 등 1997; Kang 등 1997; Han 등 1999; Kim & Seung 2000; Lee 등 2000).

확고한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식품에 대한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 자아의 확립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식행동과 식습관은 일생을 통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An & Shin 2001; Mo 등 2002). 최근 청소년들은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스스로 식품이나 음식을 선택, 구매하는 식생활 관리의 주체자가 되고 있으므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o 2000; Seo 2000; Yu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영양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학교수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Lee 2002),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특히 청소년기의 시작 시기인 중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져 왔다(Koo 1990; Jeon & Yoon 1992; Kang 1999; An & Shin 2001). 이에 2001년부터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남·여학생에게 기술·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적응 즉 남·여 공히 가정인 으로서 참여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7 차 기술·가정 교과를 통하여 청소년기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즉 학생 개개인이 식생활 단원의 교육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습한 후, 학습한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 중 식생활 단원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지도, 난이도, 필요도를 성별, 학교소재지별, 학교형태별로 평가·분석함으

로써 식생활 단원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제 7 차 교육 과정 기술·가정 교과 중 1학년 식생활 단원을 이수한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전주 도심지역(urban 334명) 전주 도심 주변 지역(suburban 339명)과 정읍 지역(rural 341명) 등 총 10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2. 조사 도구의 작성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Hong (1996), Choi (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 및 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의 검토(2001년 9월 실시)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용 타당도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0.6 이상이었다(Table 2). 질문지는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식생활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정도), 난이도(청소년의 영양과 건강, 균형있는 식사,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각 단원), 필요도(청소년의 영양과 건강, 균형있는 식사,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각 단원)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즉 인지도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난이도는 '아주 쉬웠다' 5점, '쉬운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어려운 편이다' 2점,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492	48.52
	Female	522	51.48
School Location	Urban	334	32.94
	Suburban	339	33.43
	Rural	341	33.63
School Type	Boys	165	16.27
	Girls	176	17.36
	Coeducation	673	66.37
	Total	1014	100.00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using Cronbach's α coefficient

Category	α coefficient
Perception	0.665
Difficulty	0.614
Necessity	0.667

‘아주 어려웠다’ 1점으로, 필요도는 ‘아주 필요하다’ 5점, ‘필요한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필요하지 않다’ 2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10월 29일에서 11월 5일까지에 걸쳐 실시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된 자료는 SAS (version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 필요도, 요구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성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학교 소재지별, 학교 형태별 차이는 ANOVA (분산분석)와 Scheffe-test를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는 Table 3과 같다. 흥미도 즉 식생활 단원이 기술·가정 과목의 다른 단원에 비해 흥미 있었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남, 여 모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 (1980), Hong (1996), Choi (1999)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도심 지역과 도심 주변지역은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농촌인 경우는 도심지역, 도심 주변 지역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도심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형태에 있어서는 남학교, 여학교에 비해 남녀공학 학생들의 흥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단원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학교 소재지와 학교 형태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심지역과 도심 주변 지역간, 도심 주변과 농촌 지역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형태가 남학교인 경우와 남녀공학인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학교와 여학교 간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여학교인 경우와 남녀공학인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관심의 변화 정도’ 역시 남녀간의 차이는 볼 수 없었으나 학교소재지와 학

Table 3.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 by gender, school location and school type

Variables		Mean (S.D)	F or <i>t</i> -value	
Interest	Gender	Boy	3.85 (1.05)	
		Girl	3.98 (0.89)	
	School location	Urban	4.05 (0.88) ^a	30.58***
		Suburban	4.11 (0.92) ^a	
		Rural	3.59 (1.04) ^b	
	School type	Boys	3.53 (1.07) ^a	30.90***
		Girls	3.65 (1.01) ^a	
		Coeducation	4.08 (0.90) ^b	
	Practical usefulness	Gender	Boy	3.62 (1.00)
Girl			3.67 (0.94)	
School location		Urban	3.75 (0.96) ^a	5.06**
		Suburban	3.67 (0.93) ^{ab}	
		Rural	3.52 (1.00) ^b	
School type		Boys	3.57 (0.99) ^{ab}	4.95**
		Girls	3.47 (1.00) ^b	
		Coeducation	3.71 (0.94) ^a	
Attitude change		Gender	Boy	3.18 (1.15)
	Girl		3.22 (1.10)	
	School location	Urban	3.49 (1.05) ^a	26.44***
		Suburban	3.23 (1.07) ^b	
		Rural	2.88 (1.16) ^c	
	School type	Boys	2.85 (1.20) ^a	21.68***
		Girls	2.90 (1.13) ^a	
		Coeducation	3.36 (1.07) ^b	

*: p < 0.05, **: p < 0.01, ***: p < 0.00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test

교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심지역, 도심 주변지역, 농촌 지역 모두 다르게 나타났는데, 도심지역, 도심 주변지역, 농촌 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형태에서는 남학교, 여학교의 차이가 없었지만, 남녀공학인 경우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교, 여학교 보다 남녀공학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즉, 남녀공학 학생에 있어서 관심의 변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식생활 단원의 인지도를 살펴본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는 여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및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를 볼 수 없는 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즉 양성성이 요구되어 현대에서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학생의 기술·가정 교과가 남·여학생에게 기술·가정생활 능력의 배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실생활에서의 도움을 준 정도' 모든 면에서 남학교, 여학교에서보다 남녀 공학인 경우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및 '실생활에서의 도움을 준 정도'에 있어서 도심과 농촌 지역간의 차이는 최근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도심 지역의 청소년들이 식품 구매의 자주적인 주체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식생활 단원을 통한 식품 영양 관련 지식의 습득이 농촌 지역보다 식품구매의 자주적인 주체자인 도심 지역 청소년들의 실생활에 활용된 것으로 보아진다.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난이도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난이도'는 Table 4와 같다. 단원 내용 중 '청소년기의 영양과 건강'에 있어서, 성별, 학교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학교소재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간의 현저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균형있는 식사' 내용에 대한 난이도도 성별, 학교 소재지 및 학교 형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에 대한 난이도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교 소재지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Middle school students' difficulty in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 by gender, school location and school type

Variables		Mean (S.D)	F or t-value
Nutrition & health in adolescence	Gender	Boy	3.25 (0.94)
		Girl	3.15 (0.80)
	School location	Urban	3.18 (0.87) ^{ba}
		Suburban	3.29 (0.82) ^a
		Rural	3.12 (0.91) ^b
	School type	Boys	3.17 (1.03)
		Girls	3.08 (0.78)
		Coeducation	3.23 (0.85)
	Balanced diet	Gender	Boy
Girl			3.22 (0.81)
School location		Urban	3.32 (0.86)
		Suburban	3.27 (0.82)
		Rural	3.18 (0.83)
School type		Boys	3.21 (0.90)
		Girls	3.15 (0.77)
		Coeducation	3.29 (0.84)
Principle of cooking & preparing food		Gender	Boy
	Female		3.60 (0.91)
	School location	Urban	3.48 (0.94) ^a
		Suburban	3.74 (0.92) ^b
		Rural	3.42 (1.05) ^a
	School type	Boys	3.40 (1.12) ^a
		Girls	3.43 (0.99) ^{ab}
		Coeducation	3.61 (0.94) ^b

*: $p < 0.05$, **: $p < 0.01$, ***: $p < 0.00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test

다. 식생활 단원 중 ‘청소년기의 영양과 건강’ 과 ‘균형있는 식사’ 내용에 있어서 성별, 학교 소재지별, 학교 형태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이 두 단원은 이론 중심 단원으로서 지식 습득 면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습 위주인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내용에 있어서 도심 주변 지역이 도심 지역 혹은 농촌 지역보다 더 쉽고 응답한 것은 조리 실습 경험과 남녀 가정 교과 인식을 살펴본 Yoon (2003)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도심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조리 실습 경험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실습이나 실생활과 밀접한 단원에서는 여학생이 더 쉽고 응답하였다는 Shin 등(1996)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습 위주인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단원에 남녀 차이를 볼 수 없는 것은 7차 기술·가정과 교육 실시에 의한 남·여학생에게 기술·가정생활 능력의 배양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보아진다. 이는 식생활 단원에 의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실생활에서의 도움을 준 정도’ 뿐 아니라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의 난이도 점수에 있어서 남학교, 여학교에서보다 남녀 공학인 경우 더 높은 혹은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뒷받침 되어진다.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는 Table 5와 같다. 이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청소년기의 영양과 건강’, ‘균형있는 식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나, 실습위주의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이는 Hong (1996)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여학생들은 이 단원의 내용이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기회나 요구가 많아, 이 단원의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소재지에 따른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는 ‘청소년기의 영양과 건강’, ‘균형있는 식사’,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등 모든 내용에서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도심지역의 학생들에 있어서 그 필요도가 더 높았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식품 구매 및 식사 해결에 있어서 자주적인 주체자로서의 역할 등으로 실생활에 있어 그 필요도가 높은 것을 반영한다고 사료된다. 학교 형태에 있어서 식생활 단원에서 다루지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남학교, 여

Table 5. Middle school students' necessity for food and nutrition part in Home Economics by gender, school location and school type

Variables		Mean (S.D)	F or t-value
Nutrition and health in adolescence	Gender	Boy	4.22 (0.87)
		Girl	4.07 (0.81)
	School location	Urban	4.32 (0.78) ^a
		Suburban	4.18 (0.79) ^a
		Rural	3.94 (0.90) ^b
	School type	Boys	4.03 (1.00) ^a
		Girls	3.86 (0.79) ^a
		Coeducation	4.25 (0.79) ^b
	Balanced diet	Gender	Boy
Girl			4.16 (0.84)
School location		Urban	4.43 (0.72) ^a
		Suburban	4.18 (0.83) ^b
		Rural	3.94 (0.97) ^c
School type		Boys	3.98 (1.02) ^a
		Girls	3.91 (0.93) ^a
		Coeducation	4.31 (0.79) ^b
Principle of cooking & preparing food		Gender	Boy
	Girl		3.93 (0.87)
	School location	Urban	3.98 (0.81) ^a
		Suburban	3.94 (0.89) ^a
		Rural	3.61 (0.96) ^b
	School type	Boys	3.56 (1.01) ^a
		Girls	3.65 (0.92) ^a
		Coeducation	3.96 (0.86) ^b

*: p<0.05, **: p<0.01, ***: p<0.00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test

학교 보다 남녀공학의 학생들에서 필요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이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가정과 교육에 의한 남·여학생에게 가정생활 능력 배양의 필요성에 있어서 그 인식이 남학교, 여학교에서보다 남녀공학 형태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제 7 차 기술 가정 교과 중 식생활 단원은 남·여 중학생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식생활에 대한 관심의 변화 뿐 아니라 실제 식생활에의 적용 및 식생활의 중요성 인식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졌다. 이는 남학교, 여학교에서보다 남녀공학에서의 학생들에게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식생활 단원에 대한 흥미와 특히 식생활 단원 중 실습위주의 교과 내용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등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미치지 못한 바, 여전히 성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생활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흥미는 여전히 낮은 남학생들에게 식생활 단원의 이론 뿐 아니라 실습위주의 '음식 만들기' 등의 조리교육에 있어서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진다면 남학생들에 있어서 식생활 단원의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식생활 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식생활 단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학교 소재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변화로 도심 지역 및 도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학생의 학원 활동 증가 등으로 이 지역의 학생들이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식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이들 청소년들에 있어서 기술·가정 교과를 통한 올바른 영양 지식 뿐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만을 위한 이론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 학교소재지별, 학교형태별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지도, 난이도, 필요도를 성별, 학교소재지별, 학교형태별로 평가·분석하여 추후 식생활 단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중 1학년 식생활 단원을 이수한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으로 도심지역(334명), 도심주변지역(339명), 농촌 지역(341명) 등 총 10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단원의 인지도 중 흥미도는 성별(여 > 남), 학교소재지별(도심지역, 도심 주변지역 > 농촌 지역), 학교형태별(남녀공학 > 남학교, 여학교)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단원이 실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는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 소재지(도심 지역 > 농촌 지역), 학교 형태별(남녀공학 > 여학교)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 단원을 배운 후 관심의 변화 정도는 성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소재지(도심 지역 > 도심 주변지역 > 농촌 지역), 학교 형태별(남학교, 여학교 > 남녀공학) 차이를 보였다.

2) 식생활 단원에 대한 난이도에 있어서 '청소년기 영양과 건강' 단원은 성별, 학교 형태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 소재지별(도심지역, 도심 주변지역 > 농촌 지역) 차이를 보였다. '균형있는 식사 단원'에서는 성별, 학교 소재지별, 학교 형태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단원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 소재지별(도심 지역, 농촌지역 > 도심 주변지역) 차이를 보였고, 학교 형태별(남녀공학 > 남학교) 차이를 보였다.

3)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필요도에 있어서 '청소년기 영양과 건강' 단원은 성별(남 > 여), 학교소재지별(도심 지역, 도심 주변지역 > 농촌지역), 학교형태별(남녀공학 > 남학교, 여학교)로 차이를 보였다. '균형있는 식사' 단원에서도 성별(남 > 여), 학교 소재지별(도심 지역 > 도심 주변지역 > 농촌지역), 학교 형태별(남녀공학 > 남학교, 여학교) 차이를 보였다. '조리원리와 음식 만들기' 단원에서는 성별(여 > 남), 학교 소재지별(도심 지역, 도심 주변지역 > 농촌지역), 학교 형태별(남녀공학 > 남학교, 여학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남녀 중학생에 있어서, 기술·가정 교과의 식생활 단원을 통하여 올바른 영양지식 뿐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 즉,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 학교소재지, 학교형태를 고려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참고 문헌

An GS, Shin DS (2001): A Comparison of the Food and Nutrient Intake of Adolescents between Urban Areas and Islands in South Kyung-

- Nam. *Korean J Comm Nutr* 6(3): 271-281
- Choi HD (1999):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food & nutrition section and eating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i SH (1980): A survey of the state and problems of dietary life education on home economics of middle school in Jeonlabug-do.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Ha MJ, Lee SH, Seo SJ, Kang YJ, Kim CI (1997): Nutritional statu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Nutr* 30(3): 326-335
- Han SS, Kim WK, Kim HY, OH SY, Won HS, Lee Hs, Jang YA, Kim SH (1999): The relationships among household characteristics, nutrient intake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Nutr* 32(6): 691-704
- Hong EJ (1996): Analysis of perception and need of pupils and teachers in middle school for Home Economics and Food & Nutrition.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Jeon HJ, Yoon IK (1992): A Study on the Integrated approach for the content of Industrial Arts ·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1992. *Korean J Home Economics Edu* 3(1): 95-112
- Kang YH (1999): A Study about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on meal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cooking practice in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ang YJ, Hong CH, Hong YG (1997): The prevalence of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over the last 18 years in Seoul area. *Korean J of Nutr* 30(7): 832-839
- Kim MH, Seung JJ (2000): The study of relationship among serum leptin, nutritional status, serum glucose and lipids of middle-school girls. *Korean J of Nutr* 33(1): 49-58
- Koo JH (1990): A study on the student's need interest and practice of Home Economics -Focused on the dietary life unit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Lee KH (2002): Cyber nutritional information for national health. *Korean J Nutr* 35(1): 158-162
- Lee SW, Sung CJ, Kim AJ, Kim MH (2000): A Study on attitude, food behavior and nutrition knowledge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Kor J Comm Nutr* 5(3): 419-431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Report on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Mo SM, Koo JO, Lee JW, Choi HM (2002):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Hyo- Il Publishing Co., Seoul
- Ro HK (2000): Comparisons of nutrient intakes, dietary behavior and perception about body image between adolescent boys and girls in rural Area. *Korean J Comm Nutr* 5(2): 289-288
- Seo JS (2000): New paradigm of dietary life in the 21st century. *Korean J Comm Nutr* 5(2): 357-361
- Shin DS, Kim SH, Oh HJ, Jeong HS, Chung HK (1996): The learning effects and the cognition of Home Economics by sex in middle schools. *Korean J Home Economics Edu* 9(1): 71-82
- Yoon SY (2003): A Study on middle schoolers' perception, application and needs of Food Preparation. 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Yu CH (2002): A Review on the Changes of Lifestyle and the Related Nutritional Problems in Korea. *Korean J Nutr* 35(1): 137-146